

“도민 삶 활력 되는 독립국악원 될 것”

상반기 기획·상설 공연 총 25회 추진·찾아가는 국악교육 본격 개시

전북도립국악원(원장 박현규)은 2022년 상반기 기획공연 및 상설공연 등 총 25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으며 8,300여명의 관객이 국악공연을 관람했다고 전했다.

상반기 기획공연은 봄을 맞이하는 신춘음악회 '춘향(春響)'을 시작으로 국악에 대한 열정과 실력을 겸비한 신예들을 발굴하고자 관현악단 청소년·대학생 협연 무대를 통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청춘들에게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목요일국악예술무대 '토닥토닥'은 총 7회의 공연 중 4회가 매진되고 객석 점유율이 90% 이상을 기록하는 등 공연마다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단체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국악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역할을 해냈다.

지난 6월 25일에는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관현악단 국악콘서트 '악(樂)' 공연을 펼쳐 무더위에 지친 익산시민들에게 생동감 있고 신명나는 국악무대를 선사했다.

한편,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해외공연도 재개되어 지난 6월 1일부터 5일간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된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에서 부채춤과 판소리 등으로 현지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하반기 기대가 모아지는 정기공연으로 동초계 판소리 심정가를 기반으로 소리의 본질적 요소를 살리면서 '효'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창극단(단장 조영자) 창극 '청, 꽃이 되다'를 7월 8일과 9일 이틀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관현악단(단장 권성택)의 연작시리즈 '본(本)' 네번째 무대인 '거장(Virtuoso)'과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전북농악을 모티브로 한 무용단(단장 이해경)이 준비 중인 창작무용 '진경(進慶)'도 각각 9월과 10월에 공연 예정이다.

올해는 '한-칠레 및 엘살바도르 수교 60주년' 기념 문화행사로 11월 2일부터 11일까지 엘살바도르 국립극장과 칠레 산티아고 시립극장에서 각각 2회의 공연을 펼쳐 한국 전통 국악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상반기 기획공연 신춘음악회 모습

악의 진수를 선보일 계획이다.

1994년 토요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남녀노소를 비롯하여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까지 우리의 전통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그치기에는 아쉬움이 크다.

현재의 소극장 형태인 공연무대를 확장하여 전라북도도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무대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따르는 예산과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모든 공연은 무료이며 독립국악원 홈페이지에서 공연 일주일 전부터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독립국악원은 지난 6월 7일부터 익산, 정읍, 진안, 순창,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국악연수를 시작했으며, 전주시를 포함한 나머지 시군은 7월 4일부터 국악연수를 운영해 오고 있다.

연수과목은 성악·판소리, 민요, 시조, 병창, 기악(가야금, 거문고, 해금, 대금, 단소, 아쟁), 타악(장구, 고블), 무용 등 13개 과목으로 지

역별 상황에 맞추어 운영되며, 찾아가는 국악연수를 통해 도내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균형있는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찾아가는 국악연수의 교육과정은 모두 무료이며 올해 교육은 지역별로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12월 2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독립국악원은 2020년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초급과정 동영상 300강좌를 제작하고 2021년에는 중급과정 150강좌를 추가로 제작하여 다음카페 회원들에게 연중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제작중인 고급과정 150강좌는 최종 편집작업을 거쳐 7월 중 업로드될 예정이며, 13과목 25개 반의 동영상 600강좌가 완성되면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온라인 수업이 가능해진다.

박현규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움츠러있었던 공연무대를 다시 정상화 시키고자 독립국악원의 전 단원들이 매 공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흥겹고 즐거운 국악무대를 제공하여 도민들의 삶에 활력이 되는 독립국악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김경수기자

“한복문화 톡톡 튀는 아이디어 찾아요”

한국전통문화전당, 8월 19일까지 '한복, 전주를 노닐다' 공모

'한복'과 '한복문화' 전반에 대해 젊은 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감각을 반영하는 공모전이 추진돼 주목을 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선태)은 한복 문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의적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한복, 전주를 노닐다' 아이디어 공모를 오는 8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한복, 전주를 노닐다' 공모전은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한복과 한복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다양성을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한복, 한복 문화행사, 한복 활용하기 등 한복을 소재로 전주에서 즐기고, 보고, 생활화 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전당은 공모전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 4개 팀을 선발하고, 팀별 70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 한복디자이너, 문화기획자 등 전문가 지도와 자문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기획한 아이디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한복문화와 관련한 창작 과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과가 우수한 팀을 선정해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상을 수여하고, 성과발표회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공모참여는 만 16세~27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청년으로 구성된 4인 이내 팀 단위로



가능하며, 아이디어 신청서는 8월 19일까지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bum8105@kttc.or.kr)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태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한복 문화와 관련, 젊은 세대의 감각과 생각, 표현, 다양성을 담기 위한 사업”이라며 “한복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인재들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독려했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kttc.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전라사업팀(063-281-1573)으로 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5번째 기획전시 여은희 작가 '길몽II'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다섯 번째 기획전으로 여은희 작가의 '길몽II'가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3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여은희 작가는 여러 가지 색으로 그림을 짜 넣는 태피스트리(Tapestry, 직조)를 접한 후 '실로 그리는 회화'의 세계에 빠져 20년 넘게 태피스트리 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길몽II' 전시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마음, 상상이 꽃피우는 위대한 창조성을 상기하는 길몽 연작 전시로,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과 색채, 전통문화의 이미지를 재해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한지와 실을 함께 엮고 짜서 나타낸 태피스트리(Tapestry) 작품을 서로 이어진 작품세계는 갤러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길몽(吉夢)은 '좋은 징조의 꿈'이란 뜻으로 우리 선조들은 동식물이나 꽃의 상징성에 의미를 부여하며 부귀영화를 염원해 왔다. 부귀영화를 바라는 전통적 표현은 현재의 삶에서



길몽 작품시선

도 다양한 이미지로 이어지고 있다. 여 작가는 이러한 전통이미지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풍부한 서사로 재해석해 '생명의 순환과 공존'이라는 주제를 담았다.

/김윤상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일러스트 체험전 '달콤한 상상'

군산예술의전당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전시인 '스위트 원더랜드(달콤한 상상)'를 오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달 간 제2, 3 전시실에서 마련한다.

'스위트 원더랜드(달콤한 상상)'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익숙해진 집과 가족의 소중함을 환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전시다. 실력을 인정 받은 일러스트 작가 4명(작가활동명: 포링, 엄

지, 프롬일랑, 드로잉페이퍼)의 각각각색의 상상력을 엮을 수 있다.

이 작가들은 우리 주변의 음식, 동물, 가족 등을 유틸리티 있는 작품으로 재해석하여 유쾌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거대한 종이로 만든 설치 작품과 홀파를 연상하게 하는 즐거운 공간에서 달콤한 상상을 만나볼 수 있어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동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전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국비 공모 선정사업으로 국비 70%를 지원받아 진행된다.

'스위트 원더랜드(달콤한 상상)'는 매주 월요일 휴관이고 무료로 운영되며 전시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도슨트 프로그램은 11시, 14시, 15시, 16시 진행될 예정이다. 티켓예매는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실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예술의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김관근 기자

